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24

청해진

초가을 마파람이 탐진바다를 비질하듯 샅샅이 훑으면서 불었다. 물기를 머금은 마파람은 눅눅했다. 참나무 잎들이 마파람의 기세에 허옇게 뒤집혔다. 어치들이 낮게 날고 날카롭게 우짖었다. 남쪽의 먼 바다에 먹구름이 머물러 있다는 징조였다. 최녹천은 미산포로 가다가 느티나무 둥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집에서 바랑을 메고 잰걸음으로 한달음에 걸어왔던 것이다. 바랑은 제법 무거웠다. 청해진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연화가 두 개의 황갈색 청자단지에 더덕장아찌와 두릅장아찌를 담아 주었고, 최녹천은 아껴두었던 청록색 청자 항아리를 꺼내 짚으로 둘둘 감아 바랑에 넣었던 것이다.

최녹천은 가을태풍이 오기 전에 다녀와야만 했다. 이때가 지나면 가을 가마에 불을 때야 하는 시기가 또 다시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만삭이 된 연화가 보름 전부터 청해진을 다녀오라고 재촉했다.

"대사님이 겨시는 곳에 댕겨오시지라. 대사님은 당신 아부지 같은 분인께라우."
"연화 말이 맞그만."
"긍께 댕겨오란 말이오."
"나도 댕겨올라고 그랬당께, 아부지가 날 낳아주셨다믄 대사님은 이 최녹천이를 탐진 도공으로 살아가게 헌 분이 아닌가."
"배만 안 부르믄 지도 대사님을 뵙고 잪지라."
"뭔 소린가! 학이가 배멀미 허믄 으쩔라고."

학이는 연화의 뱃속에 든 아기 이름이었다. 탐진 들판에 날아다니는 하얀 학을 보고 촤녹천이 미리 지은 이름이었다. 만약에 딸이라면 버들이라고 지을 작정이었다. 최녹천은 언젠가 청자항아리에 학과 버들을 그려 넣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최녹천의 그림 실력은 볼품이 없는 초보에 불과했다.

매미들이 구슬프게 울었다. 매미 서너 마리가 거무튀튀한 느티나무 가지에 붙어 있었다. 최녹천은 매미 울음소리를 듣고는 바로 일어서지 못했다. 한여름과 달리 초가을에 듣는 매미울음소리는 처량하기 그지 없었다. 매미들은 찬바람이 불면 한철 짧은 목숨을 접고 모두 죽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최녹천은 문득 매미처럼 목숨이 다해가는 정 족장이 떠올라 한숨을 토해냈다. 탐진 땅에 정착하게끔 자신을 도와준 정 족장의 노환이 날로 위중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처량한 매미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최녹천은 중얼거리며 일어났다.

'내가 매미라도 저러코름 울겄다. 한여름만 살고 죽어야 헌께 말이여.'

대구소에서 미산포 가는 길로 접어들자 사람들이 하나 둘 보였다. 뱃사람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군사들도 삼삼오오 미산포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 한 장사꾼이 최녹천을 보고 말했다.

"으디로 장사하러 가요?"

"난 장사하러 댕기는 사람이 아니요."

"바랑에 뭣이 많이 든 거 같은디라."

"청해진 대사님께 드릴 거지라."

미산포에 도착한 장사꾼은 남당포로 가는 배를 탔다. 그러나 최녹천은 청해진을 거쳐 추자도로 가는 장삿배를 기다렸다. 그때였다. 대구소 향리가 최녹천을 불렀다.

"녹천이도 청해진 가는그만."
"근디, 향리님께서는 어처케 지가 가는 디를 아시는게라우?"
"메칠 전에 청해진 갈 거라고 나한테 말허지 않았는가."
"아이고메, 그랬그만요."
"내가 오르는 배를 타게. 대사님께 보고드릴 일 땜시 급허게 가는 길이네."

대구소 향리가 타고 갈 배는 미산포 군사들이 순찰을 도는 순시선이었다. 청해진에서 장보고가 파견한 미산포 별장은 이미 순시선에 올라 군사들을 점고하고 있었다. 이제는 탐진현 포구의 별장들은 그곳의 향리가 지명하지 않고 청해진에서 장보고가 보냈다. 대구소 향리가 별장에게 최녹천을 소개했다.

"대사님을 뵈러 가는 사람이오."
"첨 보는 사람 같그만요."
"대사님이 월주에서 정 족장님 집에 보낸 사람이요."
별장이 최녹천의 바랑을 보면서 물었다.
"거그 든 것이 뭣이요?"
"대사님께 드릴 청자항아리그만요."
"직접 맹근 것이요?"
"그렇지라."
"대구소 당전에 있는 당인을 잘 아시요?"
"곽명인 나리를 알지라."

돛을 올린 순시선은 거센 마파람 때문에 청해진을 향해 갈 지(之) 자로 나아갔다. 청해진은 미산포에서 한 나절 거리에 있었다. 순시선이 탐진 바다를 지나 멀리 청해진이 보일 무렵이었다. 최녹천이 바랑 끈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인자 향리님도 대사님께 보고헙니까요?"
"탐진현만 그라제. 예전에는 향리 수하에 별장이 있었지만 시방은 탐진현 모든 별장덜은 대사님이 보내고 지시를 받는다네. 토성 족장덜끼리 합의해서 추대허는 우리 향리덜도 마찬가지고."

최녹천은 장보고에게 보고하려고 청해진에 간다는 향리의 말을 이해했다. 탐진현의 군권은 물론이고 모든 권한이 청해진 대사 장보고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청해진 포구에 순시선이 접안했다. 포구에는 수십 명의 군사들이 바닷가 개펄에 목책을 박아가고 있었다. 성벽과 같이 포구를 두른 목책은 당구들의 침입을 막는 1차 방어선이었다. 사역을 지휘하고 있는 별장은 정년이었다. 최녹천은 정년에게 다가가 말했다.

"대사님을 뵐라고 향리님을 모시고 왔그만요."
"최 도공이 한 번은 여그를 올 줄 알았소. 근디 향리님은 무신 일인게라우?"

정년은 나이가 엇비슷한 최녹천에게 말을 놓지는 못했다.

"대사님께 보고 드릴 말씸이 있지라."
"그라믄 내가 안내허겄소."

정년이 지휘봉 대신 들고 있는 날창을 휘휘 휘두르며 앞장섰다. 사병들이 청해진 초입에 반반한 돌을 놓은 뒤 흙을 쌓아올리는 토성 작업을 하고 있었다. 외성 작업은 염장이 지휘했다. 최녹천은 단번에 염장을 알아보았지만 정년을 뒤따라가느라고 아는 체는 못했다. 정년이 투덜거렸다.

"외성이 맨들어져야 내성을 쌓을 것인디. 군사덜이 게으른지, 별장이 신찮은지 모르겄그만."

"외성 책임자는 염장이그만요."

"책임을 졌으믄 전념을 해야제 맨날 호위궁사로 델꼬 온 흑점이 군사허고 장기를 두기만 헌당께. 쯧쯧."

정년은 혀를 차며 염장의 지휘력을 탓했다. 외성 축성과 목책 설치 작업은 비슷한 시각에 시작했는데, 외성 축성은 지지부진했다. 목책은 벌써 2백 보쯤 청해진 섬 서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둘러가고 있었다. 목책 설치는 지름이 1자 이상 되는 소나무와 참나무를 인근 섬에서 베어와 썰물 때마다 바닷가에 긴 구덩이를 파고 촘촘히 박아가는 작업이었다. 방향은 적의 접근이 용이한 섬 서북쪽과 남쪽이었다. 반면에 외성 축성은 목책 설치와 달리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 그런데도 외성 축성은 목책 설치보다 더디었다. 장보고가 염장을 불러 군사

1개조가 하루에 열댓 걸음씩 쌓으라고 목표를 정해주기까지 했지만 능률이 쉽게 오르지 않았다.

망루에 있던 장보고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마파람에 그의 긴 수염이 한쪽으로 쏠렸다. 장보고가 손바닥으로 수염을 가지런히 한 뒤 말했다.

"향리와 최녹천이 함께 오다니 희소식을 갖고 온 거 같그만."
"보고 드릴 말씸이 있어서 왔지라우."

대구소 향리가 대답하자 장보고는 최녹천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녹천이는 무신 일로 왔는가?"
"지가 맹근 청자항아리를 드릴라고 왔그만요."

장보고의 표정이 달라졌다. 마치 청해진 조성 작업 때문에 잊고 있었다가 다시 생각난 듯 관심을 나타냈다.

"청자를 갖고 왔다고? 내 방으로 들어가세."

장보고가 거처하는 처소는 망루 바로 밑에 있었다. 처소는 정면 삼 칸 기와집으로 청해진 섬의 정상 부근에 덩그러니 있어 그런지 크게 보였다. 호상이 놓인 대방(大房)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간이었다. 대방 벽에는 장보고의 대궁(大弓)과 투구, 갑옷이 걸려 있었다. 정년이 대구소 향리에게 보고하라는 듯 눈짓을 했다. 그러자 향리가 말했다.

“대사님 지시대로 탐진 도공덜이 당인에게 청자기술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요.”
“당인을 잘 예우해주씨요.”
“근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요.”
“말해 보씨요.”
“당인이 우리 도공을 감옥에 가둬부렀그만요.”
“대구소 군사는 향리 수하에 있지 않소?”
“당인은 누구 말도 듣지 않그만요. 맘대로 군사를 시켜 감옥에 보내고 풀어주고 있습니다요. 그래서인지 요새는 당인에게 배우지 않겄다는 도공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요. 골치가 아프그만요.”

당인의 월권을 예상하지 못한 장보고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월주 청자기술의 전수도 중요하지만 대구소 향리를 무시하고 도공들에게 위세를 부린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예우를 약속하고 데려온 당인을 돌려보낸다는 것도 아직은 시기상조였다. 장보고가 이맛살을 찌푸린 채 생각에 잠겨 있자 정년이 말했다.

“대사님, 당인에게 불만이 많은 도공덜을 최 도공에게 보내믄 으쩌겄는게라우?”
“탐진 도공덜을 둘로 나누어 배우게 헌단 말인가?”
“예, 그러지라.”

향리가 정년의 의견에 동조했다.

“행수별장님 말씸에 일리가 있그만요. 곽명인에게 배우지 않겄다고 허는 도공덜을 최 도공에게 보내믄 좋겄습니다요.”
“녹천이, 도공덜을 갈칠 수 있겄는가?”

“지는 아직 남을 갈칠 만헌 실력이 읎그만요.”
“별장의 의견은 좋은디 나는 최 도공의 생각도 중허다고 생각허네.”

곽명인의 청자기술은 월주에서 정평이 난 상태였으므로 자계의 하급 관리가 되어 그곳 당전에 기거했던 것이고, 최녹천은 월주가마에서 잔심부름이나 허드렛일을 했던 도공일 뿐이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정년이 말했다.

“지 아부님 말씸이 생각나그만요.”
“뭣이라고 말씸허셨는가?”
“아부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최 도공에게 우리 집 가마를 물려주라고 말씸했지라우. 그만치 최 도공의 기술을 인정허셨그만요.”

정년의 말에 최녹천이 깜짝 놀랐다.

“지는 아직 멀었어라우! 불을 더 때야만 월주기술을 숭내 낼 수 있어라우. 다만.”
“뭣이 있다는 말인가?”
“월주청자가 천하제일이라고 허지만 지는 생각이 쪼깐 다르그만요.”
“말해 보게.”
“월주 상림호와 산이 탐진 바다와 산 빛깔이 다른 거 멩키로 청자도 빛깔이 달라야 헌다는 생각을 허고 있그만요.”
“나는 월주나 탐진이나 벨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허는디 녹천이는 뭣이 다르다는 것인가?”

향리는 물론이고 정년도 최녹천의 입을 주시했다. 최녹천이 자신에게

쏠린 시선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가 탐진의 빛깔을 생각헌 시초는 정 족장님을 첨 봤을 때였그만요.”

최녹천은 자계 상림호 월주에서 산동반도 적산포를 거쳐 탐진 미산포에 왔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정 족장은 최녹천이 전해준 장보고의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장 대사의 간곡헌 부탁이네. 자네를 델꼬 있음시로 우리 가마에서도 반다시 청자를 맹글라고 말이네.”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최녹천은 정 족장에게 “대사님은 지를 탐진으로 오게 허신 은인이시지라우. 근디 어처케 은인의 부탁을 모른 체 허겄습니까요. 지는 목심이 다허는 날까정 대사님 당부대로 청자를 맹글다가 죽을라요.” 하고 자신의 결심을 고백했는데, 그때가 바로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다.

그런데 그날 정 족장의 “자네는 천상 청자를 맹글고 살 사람이네. 녹천이란 푸를 녹(綠)자에 하늘 천(天)자, 푸른 하늘이 아닌가.”라고 한 말에 최녹천은 문득 눈길을 돌려보았는데 밖은 청자 빛깔 일색이었던바, 초여름의 구름 한 점 없는 탐진의 하늘은 투명했고, 산자락은 연한 갈맷빛이었던 것이다.

이윽고 최녹천이 바랑 속에서 청자단지와 청자항아리를 꺼냈다. 청자단지는 낮은 온도에서 구워진 탓에 황갈색이었고, 청자항아리는 고온에서 잘 발색된 청록색이었다. 장보고는 청자항아리를 보자마자 탄성을 질렀다.

"이게 바로 월주청자가 아닌가? 정 족장께서 으째서 자네헌테 가마를 물려주실라고 허는지 알겄네."
"대사님, 최 도공도 곽명인 못지않은께 향리 말씸대로 도공덜을 갈라서 갈치믄 되겄그만요."
"긴가민가 했는디 이 정도 실력이믄 갈치고도 남겄네."

장보고가 향리와 정년을 번갈아보며 흥분했다. 향리는 이제 당인의 월권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장보고를 잘 만났다고 생각했다. 정년은 아버지 정 족장이 왜 최녹천에게 가마를 물려주려고 했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장보고가 흡족한 얼굴로 말했다.

"녹천이 청자는 월주청자와 비교해도 손색이 읎어. 근디 빛깔이 으쨌다는 말인가?"
"대사님, 월주청자는 뇌록색으로 탁합니다요. 근디 탐진청자는 탐진 하늘이나 바다멩키로 투명해야 헌다고 생각헙니다요. 지는 지가 맹그는 기물의 유약이 투명해질 때까지 애를 다 써볼랍니다요."
"허허. 그건 자네가 알아서 허소. 인자 내가 자네 실력을 봤응께 자네가 맹근 것을 여그 청해진에서 사들이겄네."
"지 맘에 드는 것은 아직 한 가마에 서너 점밖에 안 나옵니다요. 긍께 쪼깐 지달려주시믄 으쩔게라우?"
"아니네. 황갈색 청자도 좋고 청록색 청자도 좋은께 많이 가져오게.

무역을 해서 적산포 뒷산에 법화원을 세운 것처럼 가리포 뒷산에 법화사를 지을라고 허네.”

“대사님 말씸이라면 얼마든지 맹글어서 바치겄습니다요.”

“아참, 행수별장에게 때가 오믄 말헐라고 했네. 법화사를 짓는디 감독을 맡어 주게. 법화원 때처럼 으디로 가불지 말고. 하하하.”

“이번에는 신의를 지킬랍니다.”

정년이 뒷머리를 긁적이며 일어섰다. 썰물일 때 목책 설치 작업을 감독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향리와 최녹천은 장보고가 내주는 차를 마셨다. 두 사람은 차담을 나누는 동안 장보고에게 청해진의 규모를 전해 듣고는 놀랐다. 사병이 1만 명, 청해진의 방어시설은 목책, 내성, 외성 순으로 조성되고 있었다. 법화사는 청해진 섬이 작으므로 건너편에 있는 가리포 섬 뒷산에다가 적산의 법화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사병들은 청해진 섬에 우물이 하나뿐이었으므로 가리포 섬에 군막을 더 많이 지어 주둔하고 있었다. 군량미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보고는 크게 개의치 않는 듯했다. 청해진에서 무역을 시작하기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다.<계속>